



네스프레소
제품협업 강화 등
홈카페 브랜드로
나



Life

SK바사
유로파마와
조인트벤처 설립
L2



“캐릭터로 변신한 토종 새… 글로벌 메가 IP로 날개 펼칠 것”

메트로가 만난 기업인

박 설 희 아시아홀딩스 대표

‘팔색조 피타(Pitta), 동박새 화이트(White), 매 캐스커(Kasker), 종다리 젤다(Zelda), 큰오색딱따구리 우디(Woody).’

멸종위기종을 포함해 제주도를 대표하는 다섯마리 새를 모티브로 만든 토종 캐릭터의 이름들이다.

이 가운데 ‘길치’이지만 호기심과 모험심이 강한 탐험가 캐릭터 ‘피타’는 제주도에 있는 원시림을 형상화한 ‘꽃자왈 하우스’에 산다.

이들 다섯 종 캐릭터 모두 제주도의 깊은 숲 ‘거명숲’에서 태어났다. 거명숲의 수호자이자 자연에서 탄생한 생태문화콘텐츠 버디프렌즈(Birdy Friends)다.

“난 부동산 전문가다. 제주시에 있는 캠퍼트리 호텔엔리조트 개발을 하기위해 PM을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쳤다. 사계절 동안 조사를 하면서 조류, 파충류, 초목, 대기 등을 모두 접했다. 그러다가 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다. 제주의 자연에 대한 학습, 경험, 접촉이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버디프렌즈를 탄생시켰다.”

아시아홀딩스 박설희 대표의 말이다.

사진학과를 다니면서 대학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한 그는 영화사 프로듀서 등을 거쳐 부동산 시행사에서 사업을 총괄하는 PM으로 잔뼈가 굵었다. 서울 잠정동에 있는 옛 타워호텔을 개발한 반얀트리호텔도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이다.

그러다 지속 가능한 호텔·리조트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제주에 있는 캠퍼트리 호텔로 발길을 옮겼다. 그는 현재 이 호텔 대표도 겸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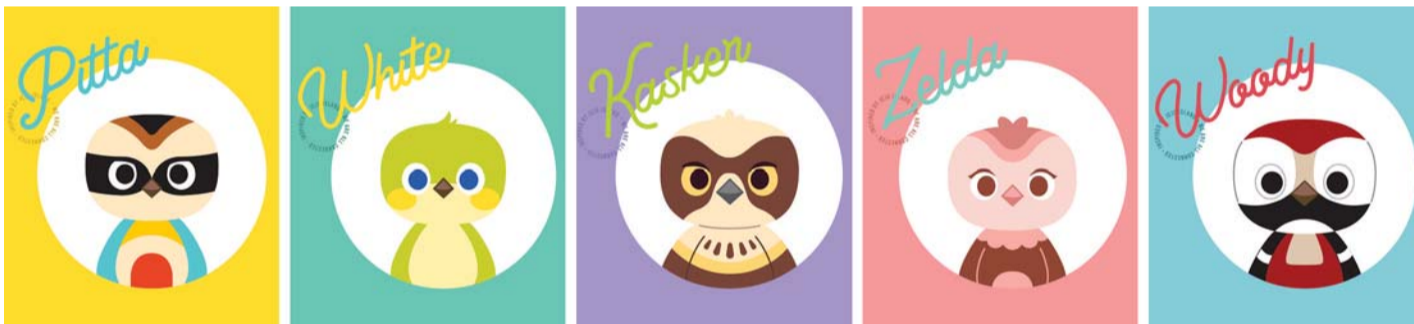
박설희 대표는 “전 세계 캐릭터 메가 IP(지적재산권) 가운데 ‘톱 20’ 안에는 한국 캐릭터가 하나도 없다. 일본의 포켓몬, 헬로키티, 미국의 곰돌이 푸, 미키마우스, 스타워즈가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의 앵그리버드가 유일하게 일본과 미국 캐릭터 사이에서 20위 안에 포함돼 있다. 앵그리버드는 핀란드의 모태펀드가 투자해 성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콘텐츠 시장은 R&D나 펀드가 매우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대표가 탄생시킨 버디프렌즈는 캐릭터계의 ‘5인조 K-아이돌’을 자처하며 월드스타를 꿈꾸고 있다.

‘거명숲을 지켜라. 버디프렌즈’ 애니메이션 시리즈 1~3편은 지난 2023~2024년 KBS2를 통해 공중파 방송을 탔다. 아이돌그룹 세븐틴 디에잇이 OST에 참여했



박설희 아시아홀딩스 대표가 제주국제공항에 있는 버디프렌즈 포토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버디프렌즈 캐릭터. 왼쪽부터 팔색조 피타, 동박새 화이트, 매 캐스커, 종다리 젤다, 큰오색딱따구리 우디.

/아시아홀딩스, 버디프렌즈 홈페이지



자연 학습 경험 위해 ‘버디프렌즈’ 탄생
제주도 토종 새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
KBS서 애니 방영… 올해 극장판 계획

모든 세대에 생태환경 중요성 알려
ESG 담은 글로벌 캐릭터로 만들고파

캐릭터 활용한 ‘복합문화공간’ 체인화
생물다양성 미래 전시관 건립 계획도

다. 올해엔 극장판도 계획하고 있다. 미래에 월드스타를 꿈꾸는 버디프렌즈가 일단 성공적으로 데뷔한 셈이다.

최근엔 제16회 마카오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까지 받아 시상식, 레드카펫 무대, VIP 리셉션 등 각종 행사에서 버디프렌즈 캐릭터를 뽐냈다.

버디프렌즈 세계관에는 생물다양성, 기후위기, 멸종위기종에 대한 스토리가 곁고루 반영돼 있다.

여기엔 박 대표의 철학도 함께 녹아 있다.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개선) 캐릭터’인 셈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인에게도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가르쳐준다. 아이와 어른이 모두 버디프렌즈의 타깃 고객이다. 자연에서 배우는 용기, 우정, 배려, 사랑, 탐험, 끈기, 창조 등의 이야기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명제이기 때문이다.

제주 중문 입구에는 버디프렌즈로 꾸민 복합문화공간 ‘버디프렌즈 플래닛’이 있다.

박대표는 “이미 구축한 버디프렌즈 콘텐츠를 활용해 키즈 카페 등 복합문화공간을 체인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면서 “학

교 급식엔 버디프렌즈 빵이 들어가고, 이마트24를 통해선 올해부터 ‘딸기파이’, ‘씨앗호떡’ 등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버디프렌즈 캐릭터는 현재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몰에서도 판매한다. 제주공항, 캠퍼트리 호텔에는 버디프렌즈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돼 있다.

성공한 캐릭터의 파급력은 엄청나다. 글로벌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박대표는 특히 버디프렌즈라는 ‘K-ESG 캐릭터’를 통해 이를 실현하는 것을 꿈꾼다.

그는 “제주서 시작한 버디프렌즈는 중국을 거쳐 UAE, 동남아 등으로 영역을 넓혀 나갈 계획이다. 실내 테마파크인 ‘생물다양성 미래 전시관’도 건립할 것이다. 캐릭터를 통해 UN과 같은 기업을 만들고 싶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나의 꿈”이라고 강조했다.

“메가 IP를 만들어 놓고 죽고 싶다”는 박대표는 현재 투자 여건이 쉽지 않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 투자자를 물색하느라 분주하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3년 안 KS 진출 목표…두산 이승엽 감독 “올해 할 수 있다”
/사진 뉴스사
▲이기흥 체육회장 3선 좌절…축구협회장 선거도 이번 나올까

▲재할 마친 이정후, 2월18일 MLB 스프링캠프 시작…김혜성은 2월16일
▲“한달 230억원 받는다”…재계약 임박한 호날두 연봉에 ‘깜짝’

▲프로농구 LG 타마요, 3라운드 MVP…아시아 쿼터 최초
▲소노 이정현, KBL 올스타전 부상 낙마…오세근 대체 선발